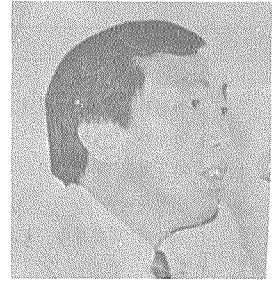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II)



산업연구원  
유 학 상 박사

### 3. NA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1.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영향

##### 1) 미-카 FTA

1989년 미-카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의 대미수출은 점차 감소한 반면 캐나다의 대미수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2〉 양국 대미수출비교

(단위 : 10억\$)

	'87	'88	'89	'90	'91.1-4
한 국	17.9	20.2	19.7	18.5	5.2
카 나 다	71.1	81.4	88.0	91.7	29.5

미-카 FTA가 발효된지 2년여 밖에 경과되지 않아 아직 FTA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경제가 '90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 빠져있어 역외국에 대한 영향평가에 있어 경기침체에 의한 요인과 FTA에 의한 요인의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 ① 미-카간 관세적용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연평균 1%씩 하락하여 2년간 인하폭은 2%에 그쳤으며, 이러한 관세인하가 캐나다 제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 ② 미-캐나다간 교역상품의 70%가 FTA 체결이전에도 무세혜택을 부여받고 있었으

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도 일정 이행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므로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3〉 무관세 상품교역 비중(%)

	캐나다 → 미국	미국 → 캐나다
FTA이전	70	65
'89. 1. 1	75	69
'93. 1. 1	85	84
'98. 1. 1	100	100

자료 : Fraser Forum, '90, 11

- ③ 한국과 캐나다의 대미 수출상품구조가 상이하여 미국시장에서 경합되는 품목이 한국과 캐나다의 10대 대미 수출상품중 공동품목은 자동차 1대 뿐이며, 20대 대미 수출상품중 공동품목은 사무용 및 자동화 기기, 열·냉음극·광음극 밸브 등 3개 뿐이며 40대 대미수출 상품중에는 통신장비, 타이어 등 5개 품목만이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미수출 감소는 미-카 FTA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미국시장에서의 마케팅 능력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카 FTA가 지금까지 우리의 대미 수출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향후 우리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

〈표-4〉 한국 및 캐나다의 대미수출 10대 상품(1989)  
(SITC 3단위 기준)

순 위	한 국	카 나 다
1	신발	자동차
2	열전자·냉음극 밸브	자동차부품
3	자동차	지류
4	자동차료 처리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차량
5	비섬유외류	원유 및 유연탄
6	직물계 의류부속	목재 및 철도침목
7	완구	펠프 및 폐지
8	녹음기 및 녹화기	알루미늄
9	남성용 코트	기타 내연기관 및 부품
10	기타 통신장비 및 부품	천연가스

라 대미 수출상품구조가 캐나다와 경쟁관계로 전환될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자본 집약적인 품목(예: 자동차, 사무용기기, 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미-카 FTA의 영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 2) 북미 FTA(미-멕시코 FTA)

### (1) 관세철폐에 의한 무역전환 효과

미-카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FTA에서도 관세철폐에 의한 무역전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멕시코의 대미수출중 55%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어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무역가중 평균관세율은 3.4%에 불과하다.

GSP에 의한 무관세가 대미수출의 약 10%, 미관세율표 9802에 의한 미국산 부품사용분에 대한 관세 면제가 대미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도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간내에 급속한 경쟁력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세철폐에 의한 무역전환 효과가 미·카 FTA의 경우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2) 품목별 영향

또한 88년 이후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는 북미FTA 체결되면 노동집약적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가

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 및 무역구조는 유사하여 상호 경쟁적이고 대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멕시코의 상위 20대 대미 수출상품중 공동품목이 13개, 40대 대미 수출상품 중에는 18개에 달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합상품의 대부분은 FTA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수출 상위 40대 품목중 양국간 경합품목 18개의 1989년 수출실적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 통신장비 및 부품, 라디오, 가전제품, 녹음기·테이프, 텔레비전, 전자기기 및 부품, 사무용기기 등의 상품이 멕시코와 대미수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평가된다(표-5 참조).

현재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수출 경합상품 18

〈표-5〉 대미수출 상위 40개 품목중 한국-멕시코 경합 품목(18개)

(단위: 백만달러)

SITC	품 목	한 국	멕시코
851	신 발	2,182.9	170.4
776	열·냉음극, 광음극 밸브	1,851.9	432.0
781	자 동 차	1,594.0	1,174.8
752	사무용 및 자동화기기	1,091.0	463.7
894	유모차, 완구, 스포츠 용품	714.8	253.0
841	남성용 코트, 자켓(니트류 제외)	692.1	217.2
764	통신장비 및 부품	686.3	1,004.5
842	여성용 코트, 외투(니트류 제외)	565.9	140.2
762	라 디 오	541.5	720.4
775	가전제품	433.0	267.4
888	악기, 제품, 녹음기, 테이프	360.8	165.7
761	텔레비전	296.7	853.6
778	전자기기 및 부품	224.7	719.9
759	사무용기계 및 자동차료처리장치 기타부품	200.2	284.6
931	잡 제 품	102.3	1,019.8
784	자동차부품, 악세서리	94.4	1,072.6
699	비금속 제품	93.3	302.4
772	스위치, 방전	88.0	863.4
	소 계 (A)	11,843.8	10,125.6
	대미수출 총계(B)	19,741.9	27,186.3
	A/B	60.0%	37.2%

〈표-6〉 한국의 대미 수출증감 추이(1985~89)

SITC	수출증가율 (%)			수출감소율 (%)	
	1985~87	1985~88	1985~89	1987~89	1988~89
851		27.7			6.1
776			48.6		
781		654.3			-35.9
752			46.0		
894	31.4			15.1	
841			5.2		
764		19.4			2.2
842		14.0			2.3
762			14.6		
775		20.9			1.1
888			24.1		
761	29.6			56.1	
778		33.8			26.4
759			52.8		
931			18.6		
784			30.7		
699		23.8			24.3
722		44.2			19.2

○1985~'88년중 연평균 대미 수출 증가율 : 26.3%  
 '88~'89년중 대미 수출 감소율 : 2.2%  
 '90년중 대미 수출 감소율 : 6.3%  
 '91년 상반기중 대미 수출 감소율(전년동기대비) : 10.7%

〈표-7〉 멕시코의 대미 수출증감 추이(1985~89)

SITC	수출증가율 (%)			수출감소율 (%)	
	1985~87	1985~88	1985~89	1987~89	1988~89
851			15.2		
776			14.9		
781		125.4			7.9
752		39.1			4.8
894			23.6		
841			18.3		
764			9.0		
842			26.0		
762		27.3			21.7
775			43.1		
888			38.5		
761			62.4		
778			24.6		
759			26.9		
931			22.8		
784			24.1		
699			31.6		
722			23.3		

○1985~'89년중 멕시코의 대미 수출 연평균 증가율 : 9.2%  
 '88~'90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율 : 11.1%  
 '91년중 상반기중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3.2%

개중 한국은 '88년 이후 2개의 상품이, '89년 이후에는 8개의 상품이 대미수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멕시코의 대미수출 상품중 3개만이 '8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6 및 표-7 참조).

- 특히 우리의 대미수출 주종상품인 자동차, 완구, TV, 전자기기 및 부품, 비금속제품, 스위치류의 수출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 멕시코 역시 자동차, 라디오 등의 수출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 양국의 대미자동차 수출감소는 미국경제침체로 인한 수입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FTA체결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세가 높으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증가세가 높은 품목 : 신발, 완구, TV, 기타 전자기기 및 부품, 기타 비금속 제품, 스위치류
- 한국의 대미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증가세가 높은 품목 : 기타 통신장비 및 부품, 기타 가전제품
- 양국 모두 대미 수출증가율이 높고 수출규모가 비슷하여 향후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 : 자동차, 사무용 및 자동화기기, 라디오

## 2. 우리의 대북미 투자에 미칠 영향

1) 대북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  
 199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미 투자규모는 미국에 1,179백만불, 캐나다에 371백만불, 멕시코에 11백만불 등인데 북미 FTA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 북미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북미지역 진출이 필수적이거나 이에선 다음 2가지 사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①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완화에서 멕시코는 80년대 중반부터 경제개방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북미 FTA를 통해 적어도 미국, 캐나다에 대

해서는 잔존규제가 없어질 것이나, 문제는 이러한 제한완화를 제3국에서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카 FTA에서 카나다는 금융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미국에 대해서만 인정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멕시코는 제3국에 대한 제한도 완화시키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내에서는 역내국에만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적용토록 하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미행정부로서도 외국인 투자에 있어 배타적 권리 향유보다는 멕시코의 전반적인 투자제한 완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일단 긍정적인 협상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① 원산지 규정

북미 FTA협상에서 3국의 이해가 대립되고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으로 USTR관계자는 “원산지 규정문제가 협상의 전부”라고 말할 정도이다.

미국은 Free-Rider 배제를 위해 현 미-카 FTA의 50% 보다 높은 Local Content를 희망한다.

- 스포츠 의류업계 (100%), 자동차업계 (60%)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계 및 의회는 50% 이상을 요청했다.
- 반면 미국내에서도 통신, 화학업계 등 원산지 규정의 최소화 내지 철폐를 요청하는 소수의견도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 및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Local Content는 억제하려는 입장인데 협상결과는 50%를 약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별로 다른 Local Content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11일 Hills USTR은 미-카간 주요쟁점이 되어왔던 자동차 산업을 미-카-멕 3국간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미 FTA에서도 자동차분야 Local Content는 미-카에서와 같이 50%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로서는 Local Content 비율이 낮을

수록 투자진출에 유리하며 만일 70% 이상 수준이 된다면 사실상 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FTA 체결시 현재 멕시코가 적용하고 있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가 철폐될 것이므로 그만큼 우리의 부품 수출여건은 악화된다.

## 2) 일본의 대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투자현황

### 〈투자총괄〉

일본의 대북미 직접투자액은 1989회계년도말(1990. 3말) 현재 1, 107억 달러에 달해 일본의 총해외 직접투자액의 43. 6%를 점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미투자는 8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1986~89년 중에는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투자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8〉 일본의 대북미 직접투자 추이(잔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회계년도)

	1987	1988	1989	1951~89
미 국	14, 704	21, 701	32, 540	104, 400
캐 나 다	653	626	1, 362	4, 593
멕 시 코	28	87	36	1, 707
북 미 계	15, 385	22, 415	33, 938	110, 700
전 체	33, 364	47, 022	67, 540	253, 896

자료 : 대장성, 금융통계 월보

그러나 일본의 대미직접투자는 1990회계년도에는 전년대비 19. 7%가 감소한 26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일본내 자금경색, 1992년 통합을 앞둔 EC지역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지역으로의 투자선 전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대북미 투자중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부진한 편이며, 이는 멕시코의 시장규모가 작고 노동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